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제1822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1월 26일 (음력 10월 29일) 수요일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062)973-5100 www.honiu.ac.kr

여수박람회 2조389억원 투입

당초안보다 22% 증액 계획 확정
아쿠아리움 등 민자 유치 불투명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모두 2조3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각종 시설은 박람회 종료 이후 남해안 해양 관광 자원 및 해양 연구·교육 클러스터 등으로 활용된다.

〈관련기사 2·3·20면〉

이에 따라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핵심 지역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해양 관광·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수박람회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총 사업비(민간투자 7천107억원 포함)는 시설비 1조7천310억원, 운영비 3천79억원 등 2조389억원이며 이는 박람회 유치 당시 계획에 비해 22% 늘어난 금액이다.

총리실은 "올 들어 도로, 철도 등 박람회 관련 1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7천298억원을 지원했고, 박람회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등 35건의 정부 중점지원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해양·환경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여수선언 및 여수 프로젝트 추진, 전시관 시설 및 운영, 교통계획, 전시연출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또 여수박람회를 남해안 선-벨트 구상,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과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해 여수시가 남해중부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적 도시 비전을 마련한다.

특히 최종안에는 수변 광장에 여수세계박람회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설치와 전시장 내에 관람객이 주제를 느낄 수 있는 수로 조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전시관 수가 기존의 8개관 16개동에서, 7개관 12개동으로 축소되고 전시관 면적도 기존의 10만8천303㎡에서 9만4천494㎡으로 1만8천200㎡ 줄어드는 점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7천100억원대 규모의 민자유치도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낮다. 특히 아쿠아리움과 엑스포타운 등은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보조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성이 없어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본계획은 다음달 2일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며, 여수박람회는 BIE 총회 승인시부터 공식적으로 참가국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 뱃길 복원 적극 지원"

이만의 환경 장관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과 관련, 지방에서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등 영산강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영산강 뱃길 복원은 환경 훼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지역에서 경제성 등을 감안, 예산 지원 등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영산강의 경우 퇴적량이 너무 많고 수량이 절대 부족해, 수질이 최악"이라며 "수량 확보부터 해야 수질 개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산강 하구언 개방 주장과 관련, "폐쇄형 하구언으로 인해 단순히 퇴적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도 쌓인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강 자체의 자정능력이 부족한 만큼 강을 살리기 위해 하구언을 트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그린 뉴딜 정책 등을 거론하며 "뱃길 복원 사업은 환경정책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장관이 뱃길 복원 사업에 대해 강한 공감과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전남도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도 '순풍'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127개사 감원 대신 휴직·교육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된 올 하반기 들어 광주·전남지역 127개 제조업체들이 직원들을 휴직 또는 교육·훈련시키는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업체수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데다, 캐리어(주)에 이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대기업들까지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경제에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사이 89개 업체가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갔으며, 고용유지지원금도 26억6천만원에 달했다. 사업장 기준으로 전년 동기 48개 업체에 비해 85%, 지원금 액수 기준으로는 25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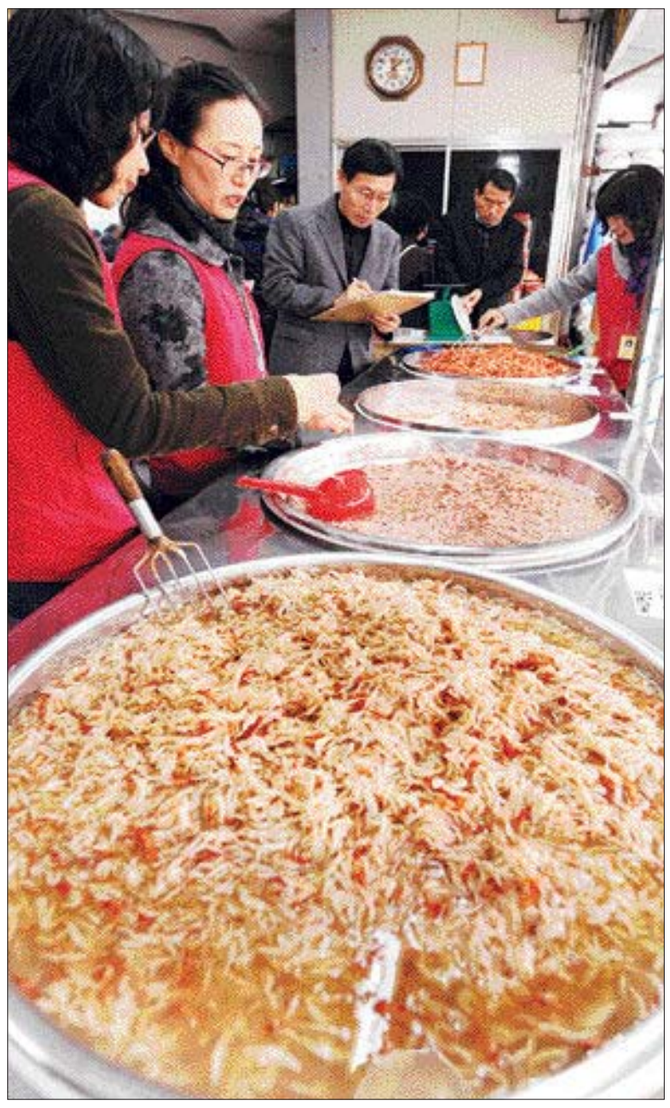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업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19개에 불과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조짐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급증, 11월24일 현재 127개로 크게 늘었다.

신청현황은 7월 21개(대상인원 598명), 8월 17개(〃 484명), 9월 21개(〃 734명), 10월 11개(〃 204명)에 달했다. 11월 들어서는 지난 24일까지 무려 38개 업체 993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원청업체인 캐리어가 이미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했으며, 최근 20% 감산조치에 들어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도 조만간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용유지 조치=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휴업·훈련·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3분의 2, 해당업체가 3분의 1을 부담한다.



김치·젓갈 점검 광주시 북구청 소속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이 25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김치와 젓갈류의 제품별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28일까지이며,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 제품 진열판매 여부 등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社告

제 3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이정길 신경외과교수 '요추관 협착증이란'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8일(금) '제31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요추관 협착증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이정길 신경외과 교수로 대표적인 척추 퇴행성 질환인 요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진단, 치료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다음달 2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주 제 : 요추관 협착증이란
■강 사 : 이정길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이사
- 대한척추인공관절연구회 이사
- 대한신경손상학회지 편집위원

■일 시 : 28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
ARITAUM